“역사의 정치도구화는 퇴행적·패권적 인식 때문”

쟁점 한국사 1~3권

한명기 등 23명 지음

‘쟁점 한국사’ 시리즈는 단군조선의 강역 논란부터 한일 역사교과서 논쟁까지 한국사의 24가지 역사적 논쟁과 이슈를 담았다. 최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 /연합뉴스

국정 역사교과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논리를 역사교육에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방침에 대해 전국 대다수의 학교가 외면했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 마저 학생이 입학을 거부하고,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에 나섰다.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빠지지않는 단골 질문이다.

‘쟁점 한국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한창일 때 열린 ‘창비학당 강좌’ 강의와 토론 내용을 묶은 것이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쟁점 24개를 짚는다. 책 집필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 등 23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기획자를 대표해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는 “역사는 하나의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0명의 역사가가 있다면 10개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 10개의 관점을 가진 이들이 주어진 사실과 역사적 맥락을 조합해 그려내는 10개의 다채로운 이야기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넘어 그 자체로 인간과 사회, 국가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다”고 밝힌다.

‘쟁점 한국사’는 전근대편과 근대편, 현대편 등 3권으로 구성돼 있다. 전근대편은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근대편은 동학농민전쟁에서 일본군 ‘위안부’까지, 현대편은 한·일 과거사 문제부터 한·일 역사교과서 논쟁까지 다룬다. 역사를 시간순으로 다루는 통사가 아니라 각권마다 8개의 쟁점을 깊이있게 파헤친다.

현대편에 실린 ‘한일 역사교과서 논쟁을 해부한다’를 들여다 보자. 지난 2003년 일본 후소샤출판사에서 식민지와 전쟁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한 일본 측 대응논리는 “우리는 한국처럼 국정제도가 아니라 검정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그것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변명이었다. 한국 역사교과서 논쟁은 일본의 우익적인 역사인식과 중국의 동북공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필자인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는 “역사의 정치도구화는 퇴행적이고 패권주의적인 역사인식과 맞물려있다”고 설명한다.

연구자들은 논쟁중인 고조선의 강역(疆域)문제를 비롯해 신라 선덕·진덕여왕 즉위배경, 김춘추와 연개소문, 고려의 개방성, 당쟁과 대동법, 사회주의 혁명가 등을 세심하게 고찰한다.

특히 박찬승 한양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세워졌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본다. 각 지방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의정원이 국호(대한민국)와 연호(민국)을 제정한 날은 4월 11일이라고 주장한다. 1987년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흔히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한다.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역사 전쟁’ 속에서 한국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다. 〈창비·1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건강한 비난은 잘못 바로잡고 도덕을 수호한다

비난의 역설

스티븐 파인만 지음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비난’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

조직 행동 분야 권위자인 스티븐 파인만 영국 바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의 신작 ‘비난의 역설-비난의 순기능에 대한 대담한 통찰’은 비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뒤엎은 책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비난은 무언가에 의미를 갖다 붙이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또 위협이나 상처나 슬픔을 느낄 때 곧바로 가져다 쓰기 만만한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추궁의 언어이자 자신에 대한 보호의 언어이기도 하다.

저자는 “비난은 흥미로운 역설을 담고 있다”며 뒤틀리고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편, 사회에 순기능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책은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우리는 왜 다른 이를 비난하는가?’에서는 비난이 일상이 된 사회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고 가짜 뉴스 등을 통해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비판한다.

2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비난의 순기능’을 통해서는 건강한 비난은 도덕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 밝힌다. 기업에 횡포에 맞서고 부도덕한 정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의 행동과 나이키 등 비난에 대처하는 거대 기업의 꼼수 등의 사례를 담았다.

3부 ‘비난 사회를 넘어 회복 사회로’에서는 비난의 최종 목표는 결국 잘못을 바로 잡는 데 있음을 밝히고 진정한 사과가 가장 현명한 대처임을 이야기한다. 또 비난이 일으킨 피해와 상처를 회복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다.

저자는 잘못과 불의를 바로 잡는 시작이 될 수 있고, 넘지 말아야할 선에 대한 경고가 될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권력을 가진 기업, 정부 등이 설명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비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비난이 왜곡되고 남용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아날로그·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재즈를 읽다=재즈를 듣는 방법에 대해 생생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재즈의 구조와 역사에서부터 즉흥연주의 구성요소에 이르기까지 재즈 전반을 다루며, 재즈를 들을 때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재즈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재즈의 등장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즈 스타일의 역사를 들려준다. 21세기 재즈 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엘리트 재즈 뮤지션 150명도 함께 소개한다. 〈시그마북스·1만6000원〉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에세이 작가 ‘무무’가 들려주는 소소하지만 특별하고 소박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69개의 보석같은 이야기. 필명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인기 에세이 작가 무무는 이번에도 소소해서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가족간의 사랑, 우정, 남녀간의 애정, 열정, 베품, 내려놓음 등의 감정들이 메마르고 갈라진 마음에 어떻게 행복의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준다. 〈보아스·1만7000원〉

▲클라라 죽이기=호러와 SF, 미스터리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독특한 색깔을 구축한 작가 고바야시 야스미의 ‘앨리스 죽이기’의 후속작.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의 전투, 공주를 구하기 위해 대신 인형이 되는 저주를 받은 청년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호두까기 인형’의 설정에 ‘앨리스 죽이기’에서 구축해놓은 세계관을 더한 ‘클라라 죽이기’는 고바야시 야스미가 20여 년간 쌓아온 역량이 고스란히 집약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검은숲·1만3500원〉

▲함께 있을 수 있다면(전2권)=출간 즉시 프랑스를 넘어 유럽 대륙을 휩쓸며 ‘소설 중의 소설’로 자리매김한 전설의 베스트셀러. 프랑스 국민 작가 안나 가발다의 최고 히트작이며, 오드리 토투 주연의 동명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이다. 저마다의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린 세 남녀와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가 우연한 계기로 한 공간에 모이면서 벌어지는 마법 같은 몇 계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북로그컴퍼니·각 권 1만3800원〉

▲냉정한 이타주의자=무분별한 선행은 오히려 무익할 때가 많다. 실효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선행 사례는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아프리카 물부족 국가에 식수 펌프를 보급하려 했던 플레이펌프스인터내셔널, 광범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월드비전, 옥스팜, 유니세프 등 거대 자선단체도 효율성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책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냉정한 판단이 앞설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선행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부키·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척척 탐정은 지도를 못 본대=척척 탐정이 사라진 엄마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생활 속 지리와 친해지도록 도와주는 책. 엄마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하게 되고 우리 땅의 특징들을 배우기도 한다. 지도의 여러 형태와 지도에 숨은 지리 정보를 읽는 방법도 쉽게 알려 준다. 〈스콜라·1만원〉

▲봄이다=민들레, 개구리, 반달곰, 진달래, 네발나비, 연이… 봄을 기다리다 서둘러 봄을 맞이하러 나선 봄 친구들, 봄샘추위에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이내 자신들이 곧 봄임을 깨닫는다. 겨우내 그러안고 있던 바람과 꿈으로 마침내 화사한 봄날을 펼친다. 〈우주나무·1만3000원〉

▲동화 쓰는 고양이 똥꼬=불의의 사고로 엄마를 잃은 고양이 똥꼬가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대립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화해를 하며 우정에 대해 깨닫기도 한다. 이리저리 치이는 길고양이들의 열악한 생활도 그려져 생명 존중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꿈꾸는 초승달·1만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개성적인 캐릭터와 힘 있는 서사로 청소년 독자들을 사로잡아 온 일곱 명의 작가들이 ‘소녀’를 테마로 쓴 작품을 모았다. 일곱 명의 ‘앨리스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행위가 결국은 내 삶을 빛나게 한다는 사소하지만 엄중한 깨달음을 얻는다. 〈서유재·1만1000원〉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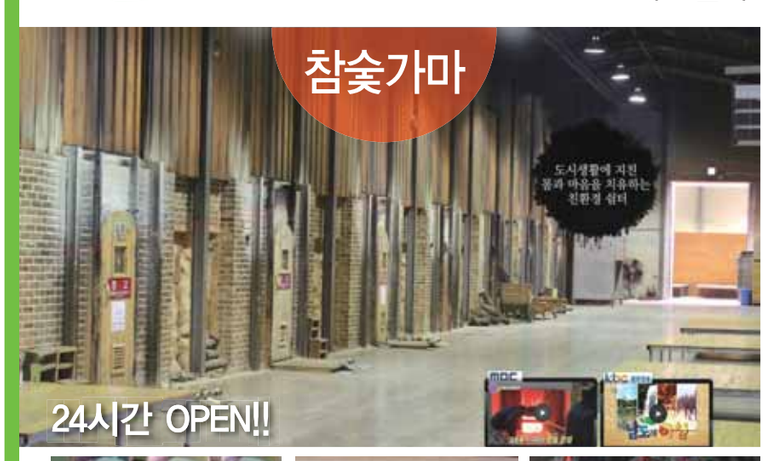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